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드리는 대학교양교육협의회의 건의문

2009. 06. 26. (금) | 편집진

※대학교양교육협의회와 한국교양교육학회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주관한 제 15 회 심포지엄에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문 >을 공동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올해 연초에 있었던 대학교양교육협의회 임시이사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 문안은 임시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회람과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 건의문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는 6월 23일에 발송되었고, 같은 문안이 6월 26일에는 청와대 교육수석, 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사무총장,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조국의 미래인 교육을 관장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저희 대학교양교육협의회는 기초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국의 4년제 153개 대학들의 연합협의체로서 대학에서 기초교양교육의 중요성과 그 개혁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우리 대학인들끼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자 결성된 10여년 연륜을 가진 조직입니다. 본 협의회는 3년 전 이러한 활동을 학술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전개하기 위하여 자매기구로 <한국교양교육학회>를 구성하여 매년 2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문학술지를 간행하는 등 정기적으로 학술활동을 겸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오랫동안 대학에 몸담아오셨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학내외적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저희 대학인들만의 힘으로 그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대학에서의 기초교양교육을 개혁하는 일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하여 대학과 사회, 특히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의 우수대학들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문명사적 변환에 발맞추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즉 기존 분과 학문의 벽을 넘어 문제중심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문제해결에 이르게 하는 포괄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초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학문영역의 전문지식에 매몰되기 쉬운 기존방식의 전공교육을 넘어서 보편화와 전문화, 그리고 다양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다학문적, 다문화적 기초능력 강화 교육에 매진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들은 부끄럽게도 이런 문제에 대한 얼마간의 인식은 있을지라도 그것을 결연한 자세로 시급히 추진할 확고한 의지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며, 우리 사회는 아직도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생산성에 연연하여 몇몇 인기 직종을 양성하는 분과학문에의 쏠림현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대학 내부의 구성원들, 즉 전공분야의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 폭넓게 형성된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즉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의 예비과정 내지는 보조과정이며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식의 판단이 대학행정의 매사에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강의비중이나 담당교수자의 비율만을 보더라도 학부교육의 50% 가까이 점하고 있는 교양교육을 아무런 평가체제나 지원체제 없이 임기응변식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다수 대학의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초교양교육 분야는 여러 전공 분야가 거의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교육 및 연구의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학술지원체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초교양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연구가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국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은 그 시대적 중차대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교육단위, 독립적 연구 분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학사회의 허울쫄은 '교양'의 구석 맞추기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개탄스런 기초교양교육의 현실을 시급히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대학교양교육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다음 사항을 시행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체계(예산과 인력)의 마련
2.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평가에서 기초교양교육의 성과 및 기획을 중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평가체계를 제도화
3. (가칭)'대학기초교육연구센터'를 전국의 주요 거점대학들에, 혹은 통합 신설되는 연구재단(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 내에 설치
4.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체계상의 분류에서 기초교양교육 분야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전공학문분야로부터 독립된 범주로 설정하고, 학제적 융합학문적 기초교육연구의 지원체계 강화

2009년 6월 12일
대학교양교육협의회 및
한국교양교육학회 회원 일동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